

<참고 1> 주요 총량지표 전망

< 농가소득 전망 >

단위: 만원, 경상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호당 농가소득	3,212	3,419	3,458	3,797	4,181	1.2	1.9	1.9
호당 농업소득	1,010	1,184	1,103	990	955	-6.8	-2.1	-0.7
농외소득	1,295	1,388	1,485	1,903	2,283	6.9	5.1	3.7
이전수입1)	908	847	870	905	943	2.7	0.8	0.8

주: 1) 이전수입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합계임.

<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

단위: 10억원, 경상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업	41,677	44,617	44,134	45,188	47,564	-1.1	0.5	1.0
재배업	24,206	25,654	25,891	25,180	25,739	0.9	-0.6	0.4
쌀	6,787	6,957	7,207	6,668	6,111	3.6	-1.5	-1.7
곡물류 <sup>1)</sup>	1,210	1,435	1,320	1,402	1,621	-8.0	1.2	3.0
채소류	8,353	9,355	9,146	8,658	8,918	-2.2	-1.1	0.6
과실류	3,584	3,813	3,839	3,383	3,217	0.7	-2.5	-1.0
특용·기타	2,759	2,718	2,902	3,554	4,259	6.8	4.1	3.7
축산업	17,471	18,963	18,243	20,007	21,825	-3.8	1.9	1.8
한육우	4,863	4,660	5,195	5,423	5,701	11.5	0.9	1.0
양돈	5,323	6,493	5,595	5,889	6,319	-13.8	1.0	1.4
육계	2,146	2,178	2,107	2,683	3,121	-3.3	4.9	3.1
낙농	1,693	1,677	1,726	1,840	1,942	2.9	1.3	1.1
기타	5,139	5,631	5,346	6,013	6,684	-5.1	2.4	2.1

주: 1) 곡물류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로 구성되며 사료작물은 제외됨.

<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

단위: 10억원, 경상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업	22,466	24,393	23,215	22,389	22,423	-4.8	-0.7	0.0
재배업	17,424	18,824	18,466	16,909	16,284	-1.9	-1.7	-0.8
축산업	5,042	5,569	4,749	5,480	6,139	-14.7	2.9	2.3

주: 부대서비스는 제외.

<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

	단위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경지면적	천ha	1,715	1,698	1,687	1,624	1,580	-0.6	-0.8	-0.6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46	1.49	1.49	1.46	1.49	0.6	-0.4	0.3
농가인구당 경지면적	a	55.9	57.3	58.3	64.2	72.1	1.9	1.9	2.4
국민 1인당 경지면적	a	3.5	3.5	3.4	3.3	3.2	-0.8	-0.9	-0.5
재배면적	천ha	1,820	1,777	1,772	1,728	1,710	-0.2	-0.5	-0.2
경지이용률	%	109.0	107.5	108.0	109.5	111.5	0.4	0.3	0.4

< 작물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천ha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쌀	892	854	847	804	758	-0.8	-1.0	-1.2
곡물류(쌀 제외)	201	190	186	196	209	-2.2	1.0	1.3
채소류	262	271	279	253	238	3.3	-1.9	-1.2
과실류	156	150	144	130	125	-3.9	-2.0	-0.8
특용·약용작물	86	83	80	77	78	-3.0	-0.8	0.2
사료작물	205	212	219	253	287	3.2	2.9	2.6

<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

	단위	2010	2011 (추정)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농가호수	천호	1,177	1,143	1,129	1,111	1,064	-1.3	-0.3	-0.9
농가인구	천명	3,068	2,965	2,893	2,532	2,191	-2.5	-2.6	-2.9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34.9)	(36.2)	(37.2)	(42.0)	(46.3)	(2.7)	(2.5)	(2.0)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6.3	6.1	5.9	5.1	4.4	-2.6	-2.7	-2.8
농림업취업자	천명	1,566	1,533	1,512	1,364	1,202	-1.3	-2.0	-2.5

## <참고 2> 「농업전망 2012」 주제별 요약

### <1부> 20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망

#### 1) 세계 및 한국경제

-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세계경제성장률은 3.4% 내외로 전망된다.
  - 미국경제는 회복이 예상되나 주택시장 부진, 고용회복 지연, 소비 증가 약세로 2.2% 내외로 전망된다.
  - 유럽경제는 재정위기로 인한 재정긴축, 금융 불안, 소비부진, 수출둔화로 0.9%로 전망된다.
  - 일본경제는 플러스전장으로 전환되나 세계경제 둔화와 엔고 지속으로 2.6%로 전망된다.
  - 중국경제는 수출증가가 둔화되나 내수 동력으로 8.5% 내외로 전망된다.
- 국제유가는 횡보가 예상(호르무즈해협 봉쇄가 변수)되고, 세계교역량은 5% 성장, 유로화는 약세, 엔화는 상반기 강세 후 하반기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불확실성으로 인해 3.6%로 전망된다.
  - 공급 측과 수요 측 물가압력 완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망된다.
  - 실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3.5%를 유지할 전망이다.
  - 대선진국 수출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 달러로 축소가 예상된다.

#### 2) 농업 현황

-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은 주력품목 선진으로 25.8% 증가한 65.6억, 수입은 축산물, 채소 등의 수입 증가로 28.8% 증가한 299억 달러였다.
- 농가교역조건은 '03년 이후 악화되었으나, '11년은 쌀, 돼지 등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개선되었다.
- 농업경영비는 유가, 사료비,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상승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 농업총소득은 WTO체제하인 '95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호당 농업소득은 '07년부터 감소추세이나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증가로 농가소득을 유지하고 있다.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07년 1/3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10년에는 31.4%였다.

- 도농 소득 격차는 농가소득 정체로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0년 76.7%를 기록하였다.

- 농가부채는 '04년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안정 추세로 '10년 호당 2,721만원이었다.

#### 3) 2012 농업 전망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국제유가·수입원자재 및 농기구 가격 상승으로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가판매가격은 곡물을 제외한 채소, 축산물, 과일 가격 하락으로 5.6% 하락할 전망이다.
- 농가호수 113만호(-1.3%), 농가인구 289만 명(-2.5%), 65세 이상 비중 37.2%(‘11년 36.2%), 총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 5.9%(-0.2%p), 농림업취업자수 151만 명(-1.2%) 으로 전망된다.
- 경지면적 168.7만ha(-0.6%), 농가호당 면적 1.49ha, 경지이용률 108.0%로 전망된다.
- 쌀, 곡물, 과일, 특용,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고, 채소, 사료작물은 증가할 전망이다.
  - 벼 재배면적은 7천ha 감소한 84.7만ha로 전망된다.
- 2011년 농업생산액은 특용·기타작물을 제외한 경종작물과 한우·우·낙농을 제외한 축산업 생산액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7.1% 증가한 44조 6,170억 원으로 추산된다.
- 2012년 농업생산액은 채소, 축산물 생산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1% 감소한 44조 1,340억으로 전망된다.
  - 쌀 생산액은 가격상승으로 인해 3.6% 증가한 7조 2,070억으로 전망된다.
  - 채소는 무, 고추 생산액은 증가하나, 배추, 마늘, 양파, 파, 수박, 참외, 토마토 등의 생산액 감소로 2.2% 감소한 9조 1,460억으로 전망된다.
  - 축산물은 한우·우, 낙농 생산액이 증가하나 양돈, 육계 생산액 감소로 3.8% 감소한 18조 2,340억으로 전망된다.
- 농업총소득은 7.9% 감소한 12조 4,560억으로 전망('11년은 13.8% 증가)된다.
-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감소에도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증가로 1.2%증가한 3,458만원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은 6.8% 감소한 1,103만원으로 전망된다.

#### 4) 식품제조업 동향과 전망

- 식품 제조업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증가하나 성장률이 둔화되어, 부가가치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 소비자의 식품구매력 향상과 소비증가로 식품 제조업 생산과 가격이 동시에 상승함으로써, 향후 식품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경영비상승으로 부가가치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 <2부> FTA 체제하에서 농업발전 구상

#### □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과제

- 2011년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11월에는 한·미 FTA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서, 2012년부터는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15년간 12조 2,252억 원(누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는 2007년 11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 이래 지금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25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부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투융자에 두고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세제와 제도의 개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향후 추진될 FTA 중에서,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중 FTA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민감성 처리에 관한 1단계 협상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적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간 농산물의 생산비와 가격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위안 환율의 상승과 함께 중국의 농업노임과 토지용역비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산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 향상이 요구된다.

-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동식물 검역조치이다.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동물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철폐 이외에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가축질병이나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지역화 인정 요구에 대응할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중국과 일본 총리는 2011년 12월에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2012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견해차가 가장 큰 일본과 중국이 합의한 만큼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협상 개시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식협상이 개시된다고 해도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안보, 국민감정, 과거사 문제 등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미국 주도의 태평양양동만자협정(TPP)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 단기적으로 한·중·일 FTA 실현 가능성은 낮다.
- TPP는 미국 주도의 태평양지역 경제통합 모델로 중국 주도(ASEAN+3 등)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정책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TPP 회원국 또는 후발 협상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존의 FTA에서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농산물 분야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을 포함한 후발 협상국들의 TPP 가입 협상 결과를 지켜본 후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유럽,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과의 FTA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 전략의 방향은 첫째 내수시장에서는 국산품 차별화를 강화하여 지키고, 둘째 FTA 상대국들의 시장을 공략하며, 셋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장기적인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 □ 차별화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키우기

- 지속적인 FTA 협상타결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농업의 신성장 동력 원 확보가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신성장

동력원 확보는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차별화, 그리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국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산물시장에서 차별화의 유형에는 원물 차별화, 제품 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 제도적 차별화 등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차별화는 원물 차별화, 제품 차별화를 거쳐, 브랜드 차별화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된다.
- 현 단계에서의 국내 농산물 차별화는 개별 생산자나 소규모 생산자조직에 의한 일시적 가격프리미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원물 또는 제품 차별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수의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으나, 소비자 충성도와 시장점유율이 높은 파워브랜드는 아직 없는 단계이다.
- 민간 유통주체들은 차별화의 목적을 일시적 가격프리미엄 획득이 아닌 충성고객과 안정적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갖춘 조직화와 규모화가 필요하다. 품목과 시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차별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브랜드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 등 유통주체들의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 농산물 브랜드화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민간부분이 주도해야할 기능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투유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정책은 성공적 브랜드의 롤 모델을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 □ FTA 대응 수출시장 확대 전략

-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대국들의 시장을 공세적으로 개척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규모와 수출성장률이 클 뿐만 아니라 수송거리의 유리점과 한류 확산 이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 FTA 대상국별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는 품목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배, 유자차, 팽이버섯, 김치, 백합, 장미가 기존의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최근에 토마토, 냉이, 미니화분, 감귤 수입이 허용되었으므로 이들 품목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 종자도 전략품목이 될 수 있다. 유럽시장은 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완전 철폐되는 품목인 김치, 딸기, 무, 유자차 등과 버섯류에, 인도네시아는 관세가 철폐되는 신선버섯류, 딸기, 장미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수출 대상국의 소비자 수용성이 높은 품질과 가격 책정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FTA 체결국 수출시장의 핵심 수출품목들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구매행태와 상품 선호속성을 파악하여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은 품질은 좋은 편이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소비자 수용성이 높은 가격범위로 상품화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수출지원은 직접보조는 줄이고 수출인프라 비중을 확대하고 환율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직접보조 비중을 줄이면서 수출인프라 조성 등 간접 지원 사업 비중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수출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대금 수령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 □ 농가소득 안정과 직불제 개편

- FTA에 의한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한국 농업은 생산 축소, 식량자급률 하락,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 이 중에서 소득 하락의 양상은 도농간 격차확대, 농가 계층간 격차확대, 지역간 격차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 소득정책의 대상은 하위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화되고 영세한 하위계층은 개별경영에 의한 소득문제해결이 어려우므로 지역단위로 조직화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① 농산물 가치증식, ② 수요 개발, ③ 생산비 절감, ④ 부가가치 향상 등 생산자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고, ⑤ 직불제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농산물 가치증식을 위해서는 친환경생산이나 생물다양성 농업 등에 의한 품질차별화와 지역브랜드화, 직거래 등 판매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로컬 푸드를 비롯하여, 신규수요 개발, 수출확대 등이 중요한 수단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다각화, 생산·가공·유통 등을 일체화하는 6차산업화 등의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고령자·여성·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 직불제는 생산자의 소득활동을 전제로 소득의 지지와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즉 시장개방에 대한 피해보전, 조직화 등을 통한 구조개혁, 다양한 소득증대 활동 등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농업구조에서 바람직한 직불제의 모습은 소득을 지지하는 ‘고정지불’과 소득을 안정화하는 ‘변동지불’을 ‘기본지불’로 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지불’을 추가하는 이중구조의 직불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기본지불의 고정지불은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지불과 발농업 직불제 확충에 의한 발면적당 지불하는 밭 고정지불을 축으로 하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로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요건으로 지불한다.
- 둘째 기본지불의 변동지불은 현행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변동지불과 같이 시장개방 등에 의한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소득 안정화 효과를 도모한다. 밭작물에 대해서도 신규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가산지불은 특정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지불하며, 현행 친환경 직불제, 경관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포함하여, 소득문제를 해결하는 소득증대 활동, 식량안보 공헌,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의 유지, 기타 공익적 활동과 연계한다. 가산지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부>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최근에 역전되었다. 2010년 농어촌 인구는 876만 명으로 2005년의 870만 명보다 0.7%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대수명 증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농어촌의 합계출산율, 귀농 귀촌 인구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 향후 농어촌 인구는 증가하여 2020년 농어촌 인구는 983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9.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 18.0%).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40대와 50대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져 그들의 경제활동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농어촌 취업자 수는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475만 명에서 471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는데, 농업 부문 취업자는 감소하고 비농업 부문 취업은 증가하였다. 비농업 부문에서는 일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증가한 반면 소매업 등 지역 내수 경제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줄었다. 향후 농어촌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농어촌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부문은 농림어업이지만 2020년에는 제조업 부문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서비스, 보건·사회복지, 평생학습 등의 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령화, 인구 과소화, 노인 독거가구 증가, 조손가구 증가, 다문화 가구 비중 증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통합 및 복지 관련 정책 과제가 대두될 것이다. 읍·면 간 격차가 커져 장소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절한 형태의 일자리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특화산업,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농촌관광, 문화 및 경관 관련 활동, 지식기반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 사업들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다루는 고용 친화적 정책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재정 지출이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 사회적 기업은 기업과 정부의 실패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기업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직으로, 국내에서는 1990년 중반부터 도입된 이래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3,00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 농어촌 사회적 기업들은 지역주민의 고용과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업 생산·가공·유통과 더불어 주거·청소, 가사간병·돌봄·보육, 교육·문화·연구, 재활용, 급식·도시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64개, 184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농어촌 사회적 기업은 농어촌의 다른 조직과 달리 젊고 고학력의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고 운영되고 있다. 아직 적지 않은 수가 운영 재원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영수지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영구조 확립, 조직문화형성 등 조직운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 농어촌 사회적 기업은 상품·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원료 등의 구매와 판매, 인력·자금 공급, 기업 운영의 전문성 지원 등의 측면에서 지역의 다양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 또한 상품·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 생산한 상품·서비스의 판매에 있어 지역사회와 전후방 연계를 가지고 있고, 수익대비 높은 고용효과를 가지면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지속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농어촌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 농어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주요 선진국들은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7.1% 수준에 있다. 내국인의 국내관광 중 농촌관광의 비중은 3.2%로 선진국의 20~25%와 비교하면 향후 농촌관광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1년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와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로 인해 농촌관광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관광 시장의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전국에 약 1,900여개의 농촌관광마을이 조성되었으며, 농촌관광마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350여개, 민박농가수 4,400호, 농촌교육농장 305개, 농촌관광마을 혹은 농가에서 개설한 오토캠핑장수는 37개가 조성되어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이러한 양적인 성장 속에서 농촌관광 비즈니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박사업만 하는 농가는 40.6%를 차지하며, 농가민박사업과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농가까지 합치면 82.2%를 차지하여 농가민박사업이 농촌관광사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2년 이후 전국에 조성된 1,900여개의 농촌관광마을의 방문객 추이를 살펴보면, 당일 방문객은 2003년 20.4%에서 2009년 46.3%로 증가한 반면, 농촌관광의 핵심비즈니스인 숙박 방문객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숙박 중 농가민박 비율은 2003년 32.6%에서 2011년 10.3%로 감소하였다.
- 농촌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농가민박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가민박 품질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며, 도시민들이 손쉽게 숙박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농가민박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농업생산을 통하여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농가에서 운영하는 농가민박, 체험프로그램, 교육농장, 오토캠핑 등의 농촌관광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들을 보면 평균 61% 가량의 국민들이 장래 농어촌에 거주할 의향을 나타내는 등 귀농·귀촌이 범국민적 관심사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후 귀농 가구는 매년 18.5% 가량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2011년 농업인재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은 농어촌 이주 목적지를 선택할 때는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곳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31%), 다음으로 자연환경 여건(22%)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에 정착 못하고 되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재이주한 도시민들은 이주 목적지 선택 시 지자체 지원 사항을 고려했다는 응답률(42%)이 가장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 도시민들은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는 51% 가량이 새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사는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 이주를 실행한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어가 주택이나 친인척의 집, 농막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은 이주 후 겪는 어려움으로는, 영농기반 미비(28%), 사업자금 부족(26%), 부족한 소득(9%) 등 경제적인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나타났다.
-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불가피하게 겪는다. 이주 직후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난 도시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책(38.5%)과 함께 귀농·귀촌 교육 강화(34.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앞으로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민들이 이주 직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우선적으로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농어가주택의 이용 장려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거나 소규모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변화·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 <2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 농어촌 서비스 기준으로 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개선방안

- 농어촌 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국가적으로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가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2014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서비스 공급 목표치이며, 모두 8개 부문에 31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재설정한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국가적 정책 목표와 비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항목 중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112신고 시 10분 이내 출동 등의 경우 이미 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교시 주민의견 수렴, 자동차로 20분 내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 방과 후 돌봄 교실 도달, 구급차 30분 내 도착, 자동차로 30분 내 문화시설 도달 등의 항목 역시 기준 목표치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기준 목표치를 달성하였거나 높은 기준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는 항목 역시 개별 시·군별로는 이행률이 저조한 곳이 많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도설치, 평생교육, 보건소 등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 서비스, 취약계층 노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도난방지 CCTV 설치 등의 항목은 기준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농어촌 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들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률이 저조하여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를 활용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준 이행실태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핵심 기준과 관련된 서비스 개선 정책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의 발굴이 필요하며, 넷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저위(低位)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효율적·효과적 운용을 위해 일부 기준의 내용 등을 개선해야 하며, 삶의 질 향상계획이 동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립·추진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 한국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과 보전

-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농촌개발정책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촌현장은 경제성장을 최우선가치로 하는 개발중심적인 정책의 결과 고유성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국적 없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현재 문화재청, 환경부, 농식품부 등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유산과 관련된 일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서, 농어업·농어촌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농어업·농어촌 유산의 발굴과 보전정책은 기존의 물리적인 시설중심, 규제중심적인 정책 시각에서 탈피하여, 농어업인의 농림어업활동과 삶의 양식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보전정책의 구상은 외국의 농촌공간과 차별화된 한국적인 고유한 농촌문화공간의 창출과 세계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농어업·농어촌 유산발굴을 통하여 FAO가 운용하는 세계농업유산(GIAHS)에 한국의 유산을 등재시키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국제기구와의 연대활동을 통한 농촌개발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종사자의 노령화로 농업의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농가는 노동력부족의 대안의 하나로 외국인노동자의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2006년부터 농축산부문에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현재 13,487명의 외국인과 한국계 방문취업자까지 15,000명 내외의 외국인이 농축산부문에 취업하고 있다. 국적별로 베트남 노동자(51.2%), 캄보디아 노동자(24.8%)의 순으로 입국하였으며 여성의 비중은 매년 30%내외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44.9%가 고용되어 있으며 작물재배업에 62.7%, 축산업에 36.2%가 고용되어 있다.
-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12만8천원이며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매년 8-12%의 임금상승이 일어나 고용주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만족도는 61.7%,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일손부족 해소도는 85.2%이었으나 일손이 부분적으로만 해소되고 있다는 응답이 53.1%로 노동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고용주의 애로사항은 근무태만이나 작업거부, 무단이탈 등 노동 관리의 어려움과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노동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서 노동자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농협중앙회의 상담내용을 통해 분석되었다. 근로시간이나 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갈등도 많았다.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쿼터확대를 통한 원활한 외국인 공급이 필요하며 계절적인 노동력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처 추가제도를 활용한 노동자의 알선 공급을 담당할 인력중개업체를 농협 등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농업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근무태만이나 작업장이탈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집안 일이 많아서 농어업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 수준은 대부분 열악하여 과반 수 이상이 연

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었다.

-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적지 않은 수(27.7%)가 남편과 시어머니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 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등이었다. 문화적응 노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시부모가 가장 적게 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안정 수준은 양호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의 관련 경험이 있었는데, 거주하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0% 수준이었다.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건강가족의 육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봐야 하고, ②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①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 <2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 □ 식품산업의 현황과 전망

- 2010, 2011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전년대비 8.3%, 5.5%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고,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도 수입원재료, 유가 등의 상승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식품제조업 품목별 출하는 고급화하고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유지류 출하는 대두유가 증가하지만 마가린, 쇼팅, 옥수수유는 감소하고, 주류 출하는 막걸리, 맥주 등 저알콜주류가 증가하였으나 위스키, 소주 등 고알콜주류는 감소하였다. 비알콜음료 출하는 생수, 두유, 커피음료는 증가하였지만, 탄산음료는 감소하였다.

- 2011년 가공식품 수출은 11월까지 가격이 전년보다 8.9% 상승하면서도 수출량이 15.5% 증가하여 국산 식품에 대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의 해외수요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은 특성상 내수 또는 내수와 수출 병행에 의해 성장이 주도되는 경향이다.
- 식품제조업체수는 최근 정체되고 있으나 업체당 매출 규모는 증가하여 규모화 되었다. 생산성 증가가 기술진보 등의 제약으로 정체되고 있다. 식품제조업 분야 R&D 지출액은 2008년까지 횡보하였으나 2009년에 증가하여 매출액대비 1% 수준이 되었다. 식품기업과 산지간 협업·제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12년 경제성장의 둔화로 식품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하여 식품제조원가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치즈, 돈육가공품, 알콜음료, 주스류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 향후 식품산업 성장은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은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료품이 3%, 음료는 1.2% 증가할 전망이다.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식품 수요는 과거의 가격합리성과 편리성 위주에서 다양화·고급화의 특성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화학첨가물 무첨가제품, 저염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 □ 친환경농식품의 소비실태와 과제

- 친환경농식품 구입경험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려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비 구입자의 경우 여건이 허락되면 구입하려는 잠재적 소비 계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농식품 구매계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구당 구입품목과 구입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친환경농산물 구입은 대형할인점(40.0%), 농협계통(15.3%),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13.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친환경농산물 가격 프리미엄은 적정 수준에 비해 유기 20%, 무농약 1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72.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72.8%로,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67.8%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은 대형할인마

트(36.5%), 직거래단체(17.4%), 전문매장(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프리미엄은 적정 프리미엄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48.8%)’가 ‘그렇지 않다(3.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인하’, ‘신뢰성 제고’, ‘적당한 구입처나 전문매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통해 친환경농식품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격인하를 위해 생산·유통 부문의 적절한 관련 정책이 요구되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식품의 건강과의 관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 1997년에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완성되면서 2010년에 99.9%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 이후 직영급식 중심으로 학교급식 체계가 전환되면서 94.6%의 학교에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유형은 공급자 특성에 따라 ①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조달 ② 농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전자조달 ③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조달 유형이 있다.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식재료는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공급이 일반적이다.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급체계 구축 측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를 통한 식재료 공급구조 규모화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급식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는 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종합물류,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공급업체는 배송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급식법”상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및 구매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식재료 공동구매, 장기 계약제배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이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생산자(단체)-학교를 연결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식재료 대량공급과 수요 창출을 위해 계약제배, 공동구매, 권장식단 도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식재료 품질, 규격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식

재료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식재료 구매자와 공급자간 혼란 발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종합배송과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센터 확보가 요구되며, 광역단위 학교급식협의회와 지역내 광역-기초 급식협의회를 마련하여 지역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로컬푸드와 지역 농식품산업의 활로

- 로컬푸드는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과 영양, 식품 안전, 에너지와 온실가스 절감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 로컬푸드는 그 특성에 의해 농업인 또는 중소 규모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단위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와의 관련성이 높다.
- 로컬푸드는 공간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의 가깝고 먼 수준에 따라 직거래형 지역내 유통, 직거래형 지역의 유통, 유통센터 경유형 지역내 유통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거래형 지역내 유통이 전형적인 로컬푸드의 유형이다.
- 도시농업, 직거래 장터, 밥상 꾸러미, 생협, 학교급식 등 다양한 유형의 로컬푸드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식품 유통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로컬푸드 활성화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로컬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목적의식적 노력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 소비자 입장에서 로컬푸드의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생활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로컬푸드를 요구하는 소비자 집단을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다. 지방 농정은 로컬푸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로컬푸드를 확대해 나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3부> 쌀·곡물

### □ 쌀 수급 전망과 과제

- 2011년산 신곡 생산량이 422만 톤으로 2010년산 430만 톤 보다 감소하면서 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 농가의 출하가 지연됨에 따라 수확기 쌀 가격은 수확기 사상 최고 수준인 16만 7,348원/80kg(12월 15일)까지 상승하였다.
  - 2012양곡연도 수확기 농가의 출하지연은 2010년산 수확기의 낮은 판매가격에 대한 보상심리, 2011양곡연도 단경기의 11.5%의 높은 계절전폭에 따른 올해 단경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2011년산 생산량이 2012양곡연도 신곡 수요량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확기의 이례적인 가격상승과 상반기 정부공매실시(1월 11일)에 따라 단경기(7~8월)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대비 3.8~6.8%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 정부의 추가개입 여부와 수준 그리고 2012년산 재배면적과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제 단경기가격은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12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2011년산 수확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완료 등으로 작년 재배면적 85만 4천ha보다 0.8% 줄어든 84만 7천ha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12년산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양호해서 단수(2009년산 534kg/10a)가 상승하여 생산과잉(452만 3천 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상여건이 나빠져 단수(2010년산 483kg/10a)가 떨어져 생산량(409만 1천 톤)이 수요량에 비해 부족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량은 2017양곡연도 408만 1천 톤으로 연평균 0.7% 감소하고 2022양곡연도에 389만 6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인당 소비량은 2012양곡연도 70.3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양곡연도에는 60.0kg으로 연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빨라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고, 국제 쌀 가격과 관세율이 높아 TRQ 이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을 전망이다.

### □ 국제곡물 수급 전망과 과제

#### 1) 2011년산 수급 및 가격 현황

- 2010년 세계적 이상기후로 주요곡물 생산이 감소한 반면 신흥국 소비 및 바이오연료용 소비는 증가하였고, 더불어 선물투기 증가로 '11년 상반기까지 국제 선물가격이 급등하였다.
- 2011/12년 곡물 생산은 회복세가 전망되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곡물 선물투기가 급감하면서 '11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12년 1

월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 2011/12년 세계 곡물생산량은 22억 9,851만 톤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나, 소비증가로 기말재고율은 20.6%이며 전년대비 0.2%p 하락할 전망이다.

## 2) 2011/12년 수급 및 가격 전망

- 밀
  - 미국의 면적, 단수,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구소련 생산량 회복으로 세계 전체 6억 9,150만 톤,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 밀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초과하였고, 기말재고율 상승(31.0%)으로 국제 밀 가격은 톤당 259달러로 9.1% 하락할 전망이다.
- 옥수수
  - 전년도 옥수수가격 강세로 미국 등 주요 생산국 재배면적 증가에 의해 생산량은 8억 6,806만 톤, 전년대비 4.9% 증가할 전망이다.
  - 옥수수 생산 증가로 기말재고율은 소폭 증가하나 소비 증가로 인해 기말재고율은 사상 최저인 14.8%로 전년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46달러로 2.9% 상승할 예정이다.
- 콩
  -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인 미국의 중서부지역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8.2% 감소하여 세계 생산량은 2.7% 감소한 2억 5,70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최대 콩 소비국인 중국의 식용, 사료용 소비 증가로 세계 소비량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말 재고율이 24.5%로 2.8%p 하락, 국제가격은 0.5% 상승한 톤당 552달러로 예상된다.

## □ 잡곡 유통실태와 과제

- 잡곡은 조·피·기장·수수·옥수수·메밀 등 식물학상 화본과에 속하는 작물로서 벼, 맥류 등과 함께 주식과 사료용으로 이용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잡곡의 고유 기능성과 영양 가치에 대한 중요성 증대함으로써 잡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조 재배면적은 2009년 1,101ha, 생산량이 1,360톤, 수요량은 2,807톤으로 수요량의 5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의 국내산 소매가격은 12,000~20,000원/kg, 수입산 소매가격은 3,750~9,980원/kg으로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 가격에 비해 2~3.2배 정

도 높다.

- 수수 재배면적은 1,547ha, 생산량은 2,562톤, 수요량은 6,519톤이며, 자급률은 39%이다. 수수의 국내산 소매가격은 11,000~18,425원/kg, 수입산 소매가격은 2,000~6,990원/kg에 거래되어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 가격에 비해 2.3~5.5배 높은 수준이다.
- 팥은 4,894ha에 5,81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요량은 29,189톤으로 이중에서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팥의 국내산 소매가격은 9,500~15,500원/kg, 수입산 소매가격은 5,650~9,880원/kg으로 국내산 가격이 수입산 가격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 잡곡의 주요 유통주체는 산지에서는 산지수집상과 생산자단체, 도매단계에서는 가공·중간도매상과 가공·판매농협, 소매단계에서는 소매상·소비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농협이다. 국내 잡곡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잡곡 유통주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부> 과일·과채·채소

### □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 1) 2011년산 수급 및 가격 현황

- '11년 과일(6개 관측품목) 재배면적은 '10년보다 5% 감소한 11만 ha, 생산량은 1% 적은 185만 톤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1년 수확기 이후 '12년 1월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다.
- 과종별로는 사과, 배, 포도가 각각 17%, 6%, 10% 감소하고, 감귤(노지)과 단감은 각각 16%, 13% 가량 증가하였다.

#### 2) 2012년 수급 및 생산 전망

- 실 이후 남아있는 '11년산 과수 저장물량은 사과가 전년보다 21% 적은 109천 톤, 배가 8% 적은 59천 톤, 노지감귤 6% 많은 41천 톤, 단감 6% 많은 24천 톤으로 예상된다.
- '12년 과일 재배면적은 '11년과 비슷한 11만ha 수준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사과가 120ha, 복숭아가 420ha 증가하고, 배와 단감이 각각 130ha, 감귤은 100ha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 생산은 평년 수준의 기상을 가정할 때 단감, 감귤을 제외한 사과, 배, 포도, 복숭아는 '11년보다 많지만 6개 과일 생산량 모두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수입 동향 및 전망

- '11년에는 국내 과일 소비량의 26%에 해당하는 65만 5천 톤이 수입되었다.
  - '11년 오렌지, 포도를 제외한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수입은 48만 톤으로 2006년보다 32% 가량 증가하였다.
- 한·미 FTA가 예정대로 발효된다면 '12년 3월 이후 오렌지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13%(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과는 병해충위험분석(미국 위험분석 5단계)이 빨리 진행된다면 수입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산 사과 수입 경험이 없고, FTA 이행 초기년도 관세 감축 폭이 적어 '12년 사과 수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배, 감귤, 복숭아는 계절관세, 병해충위험분석, 품종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앵두(체리)는 관세 24%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미국산 과일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 시장이 일시적 공급 과잉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4) 중장기 수급 전망

- '22년이 되면 과일 총 재배면적은 '12년보다 5% 감소한 10만 8천 ha, 생산량은 7% 증가한 22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재배면적은 사과 3만ha, 배 1만5천ha, 감귤 1만9천ha, 단감 1만4천ha, 포도 1만5천ha, 복숭아 1만6천ha로 전망된다.

## □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 1) 2011년 수급 동향 및 가격 현황

- 2000년대 들어 과채류(6개 관측품목) 재배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특히 수박, 참외, 오이는 재배면적 감소폭이 큰 편이다. 호박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토마토는 2007년 이후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 '11년 과채류(6개 관측품목) 재배면적은 4만 7천ha로 전년대비 4% 감소하였다. 토마토, 오이는 전년 높은 가격 기대심리로 각각 11%, 3% 가량 증가하였으나, 그 외 품목은 감소하였다.

- '11년 과채류 생산량은 오이 32만 톤, 호박 30만 톤, 수박 66만 톤, 참외 20만 톤, 토마토 37만 톤, 딸기 20만 톤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 2012년 수급 전망

- '12년산 과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7년경에는 2011년보다 2% 가량 적은 4만 6천ha로 전망된다.
  - '12년 오이는 5% 가량 감소하여 4천 3백ha, 호박은 4% 감소한 8천 4백ha, 수박은 4% 증가한 1만 6천ha, 참외는 1% 증가한 5천 9백ha, 토마토는 6천ha, 딸기는 5천 9백ha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의 경우 오이, 호박은 각각 4%, 5% 감소하지만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는 증가하여 2012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 2%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이는 4% 가량 감소하여 30만 톤, 호박은 5% 감소한 29만 톤, 수박은 5% 증가한 69만 톤, 참외는 1% 증가한 20만 톤, 토마토는 39만 톤, 딸기는 2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수입 동향 및 전망

- '11년 과채류 수입은 뉴질랜드 등지에서 단호박 2만 톤, 중국 등지에서 절임오이류 2만 톤,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냉동딸기 9천 톤, 토마토는 4만 톤 정도로 페이스트 등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입되었다.
  - 토마토, 딸기 등의 신선채소 수입은 검역 등의 이유로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으로부터의 과채류 수입은 페이스트 등 토마토 가공품과 절임오이류가 각각 1만 5천 톤 내외, 냉동딸기가 6천 톤 가량 수입되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절임오이류 수입이 빠르게 늘어 중국 과채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의 17%에서 2011년에는 42%로 증가한 반면 토마토류는 동기간 동안 77%에서 40%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 중국으로부터의 신선과채 수입은 거의 없으며, 향후 가공품 위주의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4) 중장기 수급전망

- '22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11년보다 2% 감소한 4만 6천ha, 생산량은 비슷한 2백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수박 1만 5천ha, 참외 4천 9백ha, 오이 4천ha, 호박 1만ha, 토마토 6천 6백ha, 딸기 5천 6백ha 수준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급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단수가 높아 '1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1) 건고추 수급 동향과 전망

-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00년 4.3kg에서 '10년 3.5kg으로 연평균 2%, 80g 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11년은 국내 생산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3% 감소한 3.3kg이었다.
- 소비자 조사 결과, '11년 고춧가루 구입비중은 '10년보다 7%p 감소한 58%, 건고추 구입은 6%p 증가한 35%였다. 이는 국산고추 가격이 높아 시중 고춧가루에 수입산이 혼합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 때문이다.
  - 소비자들은 국산 구입이 98%로 대부분 국산 건고추와 고춧가루 구입을 선호하였다.
- 고추 재배면적은 '00년 74,471ha에서 '10년 44,584ha로 연평균 5%씩, 10년간 40%나 감소하였다.
- '11년 고추 재배면적은 42,574ha로 전년 대비 5% 감소하였다. 단수는 수확기 잦은 비와 일조부족, 탄저병 확산으로 15% 감소한 181kg이고, 생산량은 19% 감소한 77,110톤이다.
- '10년산 건고추 수입량은 사상 최고치인 10만 500톤으로 '00년산 대비 3배이며, 국내생산량 95,391톤을 초과해 자급률 50% 이하로 돌입하였다.
  - 수입량 중 TRQ와 고율관세 건고추도 늘었으나, 냉동고추, 기타소스, 김치첨가물 등 관련품목이 88,716톤이며, 그 중 냉동고추와 기타소스가 82%이다.
-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명목)은 상품 60g당 '00년 4,640원에서 '10년 8,310원으로 연평균 10% 상승하였다. '11년은 생산량 급감으로 전년 대비 75% 급등한 14,550원이었다.
- '11년 가격은 수확초기 6~8월초 기상악화로 탄저병이 확산돼 수확량이 급감하고, 이월 재고량도 부족해 8월 16,660원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기상 호조와 수입증가, 정부비축 및 방출 증가로 9월 이후 14,000원대로 하락
- '11 수급년도에는 국산 고추가격 강세로 수입이 늘어나 민간수입량이 10만 8천 톤으로 예상되며, TRQ로 '12년 상반기에 6천 톤을 수입 방출할 계획이다.
- 총공급량은 생산량 77,110톤과 수입량 11만 4천 톤을 포함해 19만 5천 톤으로 추정되어 자급률은 44%로 전망된다.

- '12년 상반기 가격은 수확기(8월)까지 재고 부족으로 평년보다 높지만,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민간수입 증가로 전년말(14,200원/600g)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 된다.
- '12년 재배면적은 전년 건고추 가격이 크게 높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4만3천ha에 그칠 전망이다.
  - '12년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마늘 수급 동향과 전망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00년 10.6kg에서 '10년 7.5kg으로 연평균 3% 감소하였다. '11년 소비량은 국산 공급량 증가로 3% 증가한 7.7kg로 추정된다.
- 마늘 재배면적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및 중국산 저가 마늘제품 수입으로 '00년 44,941ha에서 '10년 22,414ha로 절반 가량 축소되었다.
  - 품종별로 난지형과 한지형 재배비율은 80:20으로 변화가 적다.
- '11년산은 지난해 가격 상승으로 7% 증가한 24,035ha이고, 단수는 1% 증가한 1,227kg, 생산량은 9% 증가한 29만 5천 톤이다.
- 마늘 수입량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SG가 해제된 '03년부터 급증하여 '03년 5.2만 톤이었으며, '09년까지 5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0년은 국내 마늘값 상승으로 8.9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고율관세(360%)인 깎마늘, 통마늘보다 저율관세(27%)인 냉동마늘 위주 수입이 증가하였다.
- '11년산 수입량은 '11.5~12월까지 6만여 톤, '12년 4월까지 2만여 톤 추가 수입되어 총 8만여 톤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이는 마늘가격이 30% 하락했기 때문이다. '11년은 중국 산지가격 하락으로 깎마늘, 통마늘 형태 수입이 증가하였다.
- '00년 이후 10년간 마늘 생산 감소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마늘 공급량은 '00년 50만 톤에서 '10년 36만 톤으로 감소폭이 적다. '11년산 공급량은 37.3만 톤 내외로 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마늘 가격(명목)은 '00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1% 상승하였고, '10년산은 생산량이 24% 감소하여 kg당 5,340원으로 급등하였다.
- '11년산 마늘 재고량은 생산 증가로 전년대비 3% 증가할 전망이다.

- '12년 1~5월 수확기까지 재고량은 전년 재고량이 많고 정부비축 물량의 지속방출과 민간수입 증가로 공급량이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년 상반기 마늘 가격은 전년대비 낮고, 연말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1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최근 2년간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2만8천ha로 전망된다.
  - '12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양파 수급 동향과 전망

- 양파는 양배추와 함께 서구식 식생활패턴 증가와 양파즙 등 건강지향 가공수요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는 노지채소 품목으로, 1인당 소비량이 '00년 19.1kg에서 '10년 29.7kg으로 연평균 4% 증가하였다.
- '11년 양파 소비량은 수입 감소에도 국내생산량 급증(150만 톤)으로 31.4kg이었다.
- 양파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00년 16,700ha에서 '11년 23,000ha로 증가하였다. 생산기술 발전으로 단수가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저장용 중만생종 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조생종은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이다.
  - 조생종은 수확 출하기간이 1달로 짧고, 전년산 저장 만생종 출하가 4월까지 연장되어 조생종 출하 가격 불안정으로 면적이 감소할 전망이다.
- 양파 수입량은 '00년 2만 톤, '08년 6.6만 톤, 이후 감소하여 '10년 4.9만 톤을 기록하였다.
  - '11.4~12월 수입량은 국내가격 하락으로 59% 감소한 1.4만 톤이었다.
- 양파 가격은 명목상 상승 추세이며, 실질상으로는 정체 혹은 약보합세 추세이다.
- '12년 상반기(1~3월) 양파 공급량은 수입 감소에도 재고가 많아 '11년 동기 대비 37% 많은 33만 톤으로 전망된다.
- 상반기 가격은 재고량이 많아 전년말(700원/kg) 대비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12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2만2천ha,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3% 감소한 148만 톤으로 전망된다.

### 4) 대과 수급 동향과 전망

- 대과 재배면적은 '00년 1만4천ha에서 '10년 1만1천ha로 10년간 연평균 2% 감소하였다.
  - '11년 재배면적은 전년도 가격이 높았고, 농농업다양화사업으로 인해 대과로 전환된 면적이 많아 전년보다 26% 증가한 1만4천ha이었다.
- 대과 생산량은 '00년 39만6천 톤에서 '10년 30만5천 톤으로 연평균 3% 감소하였다. '11년은 면적과 단수증가로 전년 대비 35% 많은 41만2천 톤이었다.
- 대과 가격은 '00~'11년까지 연평균 4% 상승하였으며, '11년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사상 최대로 높았던 전년보다 36% 하락한 1,300원을 기록하였다.
- 대과 전체 수입량은 '00년 4만3천 톤에서 '10년 5만9천 톤으로 연평균 3% 증가하였다. '11년은 작년보다 23% 많은 7만 3천 톤으로 이는 국내 공급량의 15%이다. 중국산 대과의 국내 판매 가격은 1천원 내외에서 형성된다.
- 대과 재배면적은 '12년 1만2천ha에서 '22년 1만1천ha로 소폭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12년에 35만3천 톤에서 '22년에 34만2천 톤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12년 재배면적은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 대과 수입량은 '12년 5만6천 톤에서 '22년에 7만9천 톤으로 연평균 3% 증가할 전망이다.

### 5) 쪽파 수급 동향과 전망

- 쪽파 재배면적은 '00년 1만1천ha에서 '10년 5천ha로 연평균 7% 감소하였다.
  - '11년 재배면적은 중구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년 가격이 높아 전년보다 9% 증가한 6천ha이다.
- 쪽파 생산량은 '00년 26만2천 톤에서 '10년 11만2천 톤으로 연평균 9% 감소하였다. '11년은 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20% 많은 13만4천 톤이다.
- 쪽파 가격은 '00~'10년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며, '11년에는 가격이 사상 최대로 높았던 전년 대비 10% 하락한 3,500원을 기록하였다.
- 쪽파 재배면적은 '12년 6천ha에서 '22년 5천ha으로 연평균 2%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2년에 14만5천 톤에서 '22년에 11만9천 톤으로 연평균 2% 감소하였다.

- '12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8% 증가할 전망이다.

## □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1)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

- 배추 재배면적은 식생활 서구화와 중국산 저가 김치, 배추 수입 증가로 '00년 5만2천ha에서 '10년 3만3천ha로 10년간 36.5%, 연평균 4% 감소하였다.
  - 2000년대 들어 김치냉장고의 전기구 보급으로 김장김치의 저장기간이 연장되어 봄배추 재배면적이 급감 추세('90년대 2만ha ⇒ '10년 1만ha)이다.
  - 여름철 중국산 저가김치 수입 증가와 농가고령화 등에 의해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10년간 50% 감소('90년대 후반 1만ha ⇒ '10년 5천ha)하였다.
- '10년 배추 가격 폭등에 따른 영향으로 '11년 면적은 18% 급증한 3만9천ha이다.
  - '10년 가을배추 가격 폭등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의한 배추 재배 증가로 가을배추 면적이 '90년대 중반 이후 최대인 17,326ha를 기록하였다.
- 배추 단수는 종자개량으로 '90년대 6,265kg/10a에서 2000년대 6,469kg로 증가하였고, '11년에는 전반적인 생육기 기상호조로 사상최대인 7,778kg/10a로 추정된다.
  - '10년에는 고랭지배추 고온과 태풍, 가을배추 저온, 가뭄과 겨울배추 한파, 폭설로 단수가 6,121kg/10a에 불과하였다.
- 배추 생산량은 '00년 314.9만 톤에서 '10년 205만 톤으로 연평균 7%씩 감소하였고, '11년은 면적과 단수 급증으로 49% 늘어난 306.2만 톤을 기록하였다.
  - '11년 생산량은 봄 65.6만 톤, 고랭지 17.4만 톤, 가을 189.7만 톤, 겨울 33.5만 톤이었다.
- 배추 수출은 국내 수급에 따라 변동하여 '11년에는 생산급증으로 대만 등에 역대 최대인 8,837톤을 수출하였다.
- 김치 수출은 '04년까지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06년 이후 정체되어 2.5만~3만 톤을 수출하였다. '11년에는 8% 감소한 2.7만 톤을 수출하였다.
-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되는 배추는 국내 수급 불안정기에 주로 수입되어 수입량 변동이 심하다. '08~'09년에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10년 13,565톤, '11년에는 6,324톤을 수입하였다.
- 대부분 중국산인 수입김치는 '03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07년부터 매년 20만 톤 내외를 수입하였다.

- 배추로 환산한 수입량은 '07년 이후 50만 톤 내외로 국내 생산량의 20%, 전체 소비량의 15% 수준이다.
- '11년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4,621ha, 단수는 7,259kg으로 평년보다는 5% 증가했지만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42% 증가하였다. 따라서 생산량은 33.5만 톤으로 작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평년대비 8% 감소하였다.
- '12년 1월 배추가격은 가을배추 저장량과 출하대기물량 급증으로 평년대비 30% 이상 하락하였다.
  - 2~3월에도 가을배추 저장량과 출하 지연된 겨울배추 출하량이 평년대비 10% 이상 증가해 가격은 평년대비 약세가 지속되나, 출하량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약상승세가 전망된다.
- '12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37%, 평년대비 26% 감소한 7,700ha로 조사되어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재배의향면적에 평년 단수 적용 시 생산량은 최저 수준인 33.9만 톤으로 전년대비 48%, 평년대비 26%로 급감할 전망이다.
- 모형 추정 결과 '12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5,080ha(전년대비 4%, 평년대비 11% 감소),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4,670ha(전년대비 15% 감소, 평년과 비슷)로 예측되었다.

### 2) 무 수급 동향과 전망

- 무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수요 감소로 '00년 4만ha에서 '10년 2만2천ha로 10년간 45%, 연평균 6% 감소하였다.
  - 2000년대 들어 월동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가을무 재배면적은 급감 추세(가을무: '00년 1.5만ha ⇒ '10년 7.5천ha. 월동무: 600ha ⇒ 3.8천ha)이다.
- '10년 무 가격 강세로 '11년 면적은 11% 증가한 2만4천ha이다.
  - '10년 가을무 가격 폭등으로 '11년 가을무 면적은 9,748ha(30.4%증가)이었다.
- 무 단수는 종자개량으로 2000년대 연평균 3% 증가, '11년에는 전반적인 생육기 기상호조로 2000년대 이후 최고치인 5,930kg로 추정되었다.
  - '10년에는 고랭지, 가을 무의 태풍, 고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단수가 4,748kg에 불과하였다.
- 무 생산량은 '00년 176만 톤에서 '10년 104만 톤으로 10년간 41% 감소하였고, '11년은 면적과 단수 급증으로 34% 많은 139만 톤.
  - '11년 생산량은 봄 10만 톤, 고랭지 7.8만 톤, 가을 72만 톤, 월동(행정통계) 28만 톤이었다.

- '11년 월동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192ha, 단수는 전년과 평년보다 20% 내외 증가한 6,625kg, 생산량은 27.7만 톤으로 전년/평년대비 31% 증가할 전망이다.
- '12년 1월 무가격은 가을무 저장량과 월동무 출하대기물량 급증으로 평년대비 약세 지속, 2~3월에도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12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시설과 노지 모두 평년보다 9% 내외 감소할 전망이다.
- 모형 추정 결과 '12년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2,615ha(전년 대비 4% 감소, 평년대비 7% 증가), 가을무는 8,374ha(전년 대비 14% 감소, 평년보다 4% 증가)로 예측되었다.

### 3) 양배추·당근 수급 동향과 전망

- 양배추 생산량은 2000년 이후 30만 톤 내외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 재배면적은 5,800ha 내외, 단수는 5,500kg 내외 수준이다.
- '12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감소한 6.5천ha로 전망되고, 평년작황을 고려할 경우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한 36만 톤으로 전망된다.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14.7천 톤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8% 감소로 전망된다.
  - 고랭지양배추는 증가, 가을·겨울 양배추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 당근 생산량은 '08년 이후 약 10만 톤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 재배면적은 2,800ha 내외, 단수는 3,700kg 내외 수준이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수입량이 급증하여 현 자급률은 50% 수준이다.
- '12년 재배면적은 '11년보다 다소 증가한 3천ha, 국내 생산량은 11만 톤으로 전망되고, 수입량을 고려한 전체 공급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8% 증가할 전망이다.
  - 고랭지·가을·겨울 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 4) 농산버섯 수급 동향과 전망

-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05년 1,361ha에서 '10년 764ha로 연평균 5% 감소하였다.
  - '10년 재배면적은 느타리가 215ha, 양송이 125ha, 새송이 114ha, 팽이는 45ha이다.
- 생산량은 생산 규모화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 '10년 느타리는 45만 톤, 양송이 2.3만 톤, 새송이 4.4만 톤, 팽이는 5.3만 톤을 기록하였다.

- '12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167천 톤으로 전년(165천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규모화(느타리, 팽이)로 생산량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 채소류 가격 불안정 요인과 안정화 방안

- 채소 수급 및 가격 안정은 농업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생산자 소득 안정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기후 온난화 등에 기인한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자주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가격 변동성 심화,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정 재배면적 확보가 어려워 채소 수급 및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채소류의 주요 품목인 배추, 고추, 마늘을 대상으로 가격 변동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과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기후 온난화 등의 이유로 잦은 기상변화가 발생하여 단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수요에 적합한 재배면적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채소류 가격 불안정 요인은 생산, 저장 및 가공, 시장, 제도 등에서 생산자 단체의 전국 조직화 체계 미비, 저장 및 가공 시설 및 관련 전문가 부족, 산지유통인의 시장참여, 확일화 된 도매시장 거래제도, 비축사업의 취약성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채소류 가격 안정화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저장 및 가공체계 확립으로 단기적 시장실패 대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위기관리 능력 향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시장 실패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저장 및 가공 사업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 채소류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은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체계 정비 및 강화, 농협과 산지유통인의 계약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3부> 축산

## □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1) 한육우

- 도축 마리수가 크게(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2011년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2010년(292만 마리)보다 1% 증가한 295만 마리에 그쳤다. 정액판매량이 감소하고 송아지 가격 약세로 농가의 번식의향이 위축되어 2012년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2011년보다 2% 감소한 289만 마리로 전망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암소 감축 10만 마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2013년까지 20만 마리 감축) 2012년 사육 마리 수는 2011년보다 6% 감소한 279만 마리로 전망된다.
-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8% 증가한 2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1년(12,782원)보다 6% 하락한 12,069원으로 전망된다. 암소 감축물량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공급될 경우 2012년 한우 도매가격 하락 폭은 확대될 수 있다.

### 2) 젓소

- 2011년 농가 쿼터량 확대와 원유 수취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사육의향이 고무되어 2012년 젓소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2.2% 증가한 41만 3천 마리로 예상된다.
- 젓소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2년 원유 생산량은 1.5% 증가한 192만 톤으로 전망된다.

### 3) 돼지

- FMD 이후 지속적인 모든 재입식으로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817만 마리까지 회복되었으나,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보다 22.8% 감소한 758만 마리였다. 순조로운 모든 재입식으로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이어져 2012년 9월에는 900만 마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884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9.3% 증가한 6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공급량이 증가하여 돼지 탕박 기준 지육가격은 2011년보다 14% 내외 하락한 4,600원/kg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산란계

-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290만 마리로 전망된다. 향후 2013~202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2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1,17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2013년까지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

### 5) 육계

-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1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리수는 2010년 대비 4.2% 증가한 8,424만 마리였다. 장기적으로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 2012년 닭고기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산지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육계 산지가격은 2011년보다 6.9% 하락한 1,729원/kg으로 전망된다.

### 6) 오리

- 2011년 초 종오리 매물로 인한 일시적인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오리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어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약세 상황이 하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1년 종오리 사육이 증가하여 2012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296만 마리로 전망되며, 공급량 증가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 하락한 6,000~6,200원/3kg으로 전망된다.

## □ 축산업 정책 방향

-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질병근절, 우수종축 공급,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종별 낭비요인 발굴·개선 등이 필요하다.

- 또한,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 폐업보상 등의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명절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판매, 군급식 확대, 육우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한우암소 감축 등을 통해 적정사육마리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7만 톤과 후보모돈 5천 마리를 할당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며, 성수기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상장 출하물량 20만 마리를 확보하였다.
- 상반기 동안 8개 품목 4만 톤의 유제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닭 생산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컷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들제, 도축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셋제, 부분육 유통 활성화, 넷제, 사이버 거래 확대, 다섯제, 소매유통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2013년 최초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라도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여 농가별 실명제, 일제소독, 전화예찰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재발가능성이 높아 야생조류 모니터링 확대, 항공방제, 가상방역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료가격 안정방안

- 사료원료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외생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국내 자급률 향상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 낙농산업 발전방안

- 낙농가와 유업계,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국단위 수급체계 구축,

단계적 집유일원화, 원유가격 연동제, 중앙낙농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 2012년 시행에 맞춰 해양투기 차단을 위해 특별관리 기간과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한편,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여 축산분야 R&D 추진방향 및 과제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으로 승마 대중화, 말 수요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전문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국민의 여가 기회 확대 및 농어촌 소득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내 동물용 의약품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 <3부> 임업

#### □ 단기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밤, 표고버섯, 뽕은감, 대추

- 2011년 단기임산물(밤, 대추, 뽕은감, 표고)의 생산량은 2010년보다 17% 감소한 18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 밤, 대추, 뽕은감 등 수실류 생산량은 생육기 및 수확기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2010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고버섯 생산량(생표고 환산)은 건표고 생산량의 감소로 2010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 밤 생산량은 기상이 안정되면 68,000톤으로 2011년보다 증가하며, 수입량은 2011년산 생산량 감소로 8,7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2년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13,300톤으로 증가하며, 1인당 소비량은 1.29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뽕은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103,300톤으로 2011년보다 증가하며, 수입량은 2011년산 생산량 감소로 2,6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2년 생산량이 회복 및 신선감(탈삼) 수출 확대로 360톤으로 증가하며, 1인당 소비량은 2.15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대추 생산량은 기상이 안정되면 9,200톤으로 2011년보다 증가하며, 수입량은

2011년산 생산량 감소로 23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2년 생산량이 회복되고 건대추에 대한 관심고조로 40톤으로 증가하며, 1인당 소비량은 0.19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표고 생산량은 톱밥배지 생표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43,700톤으로 2011년보다 증가하며, 수입량은 2011년산 생산량 감소로 20,200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량은 2012년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2,500톤으로 증가하며, 1인당 소비량은 1.25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기후변화에 대응한 목재수급 전망과 과제

-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과 목재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변화협약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방지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방안(REDD)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원인으로 불법벌채가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목재·목제품의 역할을 인식하고 목재이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건축에서 목재 이용 증진, 임업·목재산업의 진흥 등이다.
- 우리나라 목재소비자는 연간 2,700만 m<sup>3</sup> 내외인데 목재 자급률은 13.5%에 불과하다. 국산재 생산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소경재이며 저급재로 이용되고 있다. 목재공급이 부진한 것은 빈약한 산림자원 구조, 산주의 의욕부진, 높은 수확비용,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취하는데 이를 위해서 임업·목재산업의 진흥이 요구된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목재소비에 솔선해야 한다.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면 목제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환되어 목재 소비도 크게 진작될 것이다. 그리고 임업의 목재공급 능력 강화를 위하여 별채규제 완화, 단벌기 목재생산림 조성, 미이용 간벌재의 활용 증대 등으로 목재 공급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임도를 확충하여 저비용 안정공급 체계를 갖추고 임목의 생산·수집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목재산업은 목재의 가공수율을 높이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소경재를 이용하는 공학목재, 목재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프리컷 또는 프리패브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표준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목재이용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의한 산촌 진흥

-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순환형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수집 가능한 임지잔재 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자원 작물재배, CO<sub>2</sub> 흡수 및 고정, 탄소상쇄(Carbon offset)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 지역에너지 공급센터, 산림탄소순환마을 전략 및 고용센터, 녹색관광센터, 산림바이오에너지 유통센터 등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반출하여 임산업체를 중심으로 주택자재, 제재 및 집성재, 펠릿, 칩 등 목재가공 및 바이오에너지 가공 산업으로 연계되고, 생산한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는 지역에너지 공급센터를 통하여 탄소제로 주택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산림바이오에너지 유통센터에서는 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공시설, 휴양림, 목조주택 등 산림휴양시설, 산림작물재배시설 등에 유통이 필요하다. 녹색관광센터에서는 지역내 순환형 산림경영과 산림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체험객의 견학과 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내 전체적으로 산림탄소순환마을의 전략구상과 고용창출 등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운영을 위해서는 펠릿이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과 산촌주민의 소득원 제고를 위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운영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 <3부> 기후변화

### □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와 농업적 활용

-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주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0년간 1.8℃가 상승하여 지구평균보다 상승속도가 빠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수온도가 빠르게 상승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RCP)에 근거한 미래기후변화 전망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래기후변화는 과거에 비해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되며, 210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RCP8.5) 지구평균기온은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경우(RCP4.5)에 비하여 2℃ 이상 높

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기온은 6°C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온 상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후지역이 북상하고,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식물 생장기간은 길어지고,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증가하며, 영하일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근해의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에서 해수 침수로 인한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증발량이 증가하여 토양표층의 수분이 감소하여 가뭄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물과 축산 등 농업 부문에서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아열대성 병충해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재배지역을 이동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각지에서도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식량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상청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를 중심으로 RCP에 기반을 둔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국제사회(IPCC)에 제공하고, 국내 지형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을 적용한 고해상도의 자료를 2012년에 유관기관 및 산·학·연에 제공할 계획이다.

## □ 기상이변과 식량안보

- 최근 31년(1980~20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태풍, 폭풍, 우박, 토네이도 등 기상현상에 의한 자연재해와 홍수, 산사태 등 수문현상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횟수가 특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으로 1000건이 넘었다.
- 일본의 벼 수량은 일본 북부와 중부지방에서는 증가하지만, 남부지방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고온에 의한 벼 불임증가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자연 조건에서 중국의 벼 생산량은 고다드우주연구소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10~78% 감소,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는 6~33% 감소, 영국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는 8~3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의 벼 수량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되었지만, 온도증가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에는 수량이 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의 벼는 온도를 A1B 기후시나리오에 따라 생육모의 연도별로 적용하고, CO<sub>2</sub> 농도는 기준년도의 CO<sub>2</sub> 농도로 고정하여 적용하였을 경우 조생종, 중생종 및 중만

생종의 2011~2040년, 2041~2070년, 2071~2100년 기간의 평균 잠재수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각각 17.0, 28.7, 35.1%씩 감소하였으며, 중만생종의 감소폭이 조생종 및 중생종에 비해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리의 경우 온도는 A1B 기후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경우 미래의 온도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2011~2040년 생육 모의 연도의 잠재수량이 기준년도와 비슷한 반면, 온도상승 정도가 큰 2041~2071년, 2071~2100년의 미래 기후조건에서는 보리의 잠재수량이 기준년도에 비해 각각 6~17, 20~34%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밥쌀용 벼 품종의 품질향상과 가공·기능성 품종의 다양화를 통한 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인다. 또 곡물자급률 저조의 주원인인 발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쌀(하계)-맥류(동계) 중심의 작부체계를 발작물(하계)-맥류(동계) 작부체계로 다양화해야 한다.
- 지역별 취약분야에 적합한 적응대책 수립을 위하여 기상재해에 취약한 지역 및 시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단기적으로 기상정보, 병해충발생 정보, 재해발생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수집·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농업기상정보 예측, 재배시기 조절 및 농작물 관리 기술, 온실 환경관리 기술, 내재해성 품종 개발, 장기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다.

## □ 기후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과제

-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에 작물 재배기간과 신품종 재배가능성의 확대 등 긍정적 영향도 미치나,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병해충 발생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지배적이다. 또한 농업부문은 생산 활동 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을 배출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무경운 등 농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는 영향을 받는 피해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결자 등의 복합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곡장지대의 수확량 감소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상기상으로 채소류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단기간의 가격급등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대응책은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수립에 따라 1990년대

후반으로 추진되었으나 주로 온실가스 추정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고, 2011년 12월 1일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2011~20)'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농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완화와 적응분야의 160여개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주요국은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메뉴방식의 저탄소직불제, 영국은 농촌현장에서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윈스톱서비스인 농장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육성'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존의 대책과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완화와 적응 분야로 나누어 8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①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반구축과 시범사업 추진, ② 메뉴방식의 저탄소직불제 프로그램 도입, ③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추진, ④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① 적응 기술개발, ② 기반시설 관리 강화, ③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④ 인력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